

현대 조경설계와 ‘승고’의 미학

배정한

단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조경을 정의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가치 중 하나가 미 또는 아름다움이다. 조경미학이라는 교과목명 또는 분야명 역시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지형을 그리며 변화하고 있는 최근의 조경에서 미적 가치나 미학과의 접점을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동시대 조경설계의 대표적 성과라 할 수 있는 빅스비파크, 뒤스부르크노드파크, 쇼우부르플레인, 다운스뷰파크, 프레쉬킬스 등에서 우리가 어떤 감흥을 경험하고 때로는 경탄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작품들의 특질이 ‘아름다움’(the beautiful)이라는 전통적인 미적 범주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전략, 프로세스, 판(surface), 흐름(flow), 물성 등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좌표에 주목하고 있는(참조, 배정한, 2004) 최근의 문체작들을 미의 기본 원리라고 흔히 지칭되는 비례, 대칭, 균형 등과 같은 척도로 설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현대 조경설계는 미학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인가? 이제 조경의 지향점에서 미를 삭제해야 할 시대인가? ‘그렇다’라는 즉답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큰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미학이 그 전성시대였던 18세기 이상의 호황을 누리며 부활하고 있는 현상은 오늘날 문화 풍경 전반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인데¹⁾, 동시대 문화의 열개와 긴밀한 합수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조경이 미학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있다는 해석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것이다. ‘포스트-’ 문화의 물결 속에서 현대 조경설계가 직조하고 있는 미학적 층과 결은 무엇인가. 이 글은 이 쉽지 않은 물음에 답을 마련해 보기 위한 경로의 한 갈래이다.

2

만일 동시대의 주류 조경과 미학 사이에 공통분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때의 미학은 ‘형식’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두어 온 전통적 서구 미학일 것이다. 형식 위주의 미 개념은 사실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대 이래로 미의 본질이란 조화롭고 균형 잡힌 형식에 있으며 미적 경험이란 그러한 형식을 순수하게 관조(contemplation)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미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한편으로는 대칭과 비례를 미의 척도로 삼고 있는 고대의 조형예술을 실제적 모범으로 따르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세계의 본질을 수학적 비례 관계로서 이해했던 피타고라스학파의 사상에 이론적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미학적 관점은 사물에 대한 공간적 지각 방식과 로고스적 사고 체계를 그 토대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 태도의 바탕에는 세계를 조화와 통일로서 파악하는 코스모스적 세계관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미 개념이 조경의 역사에서도 보편적이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두꺼운 조경사 책을 다시 펼칠 이유는 없다. 르네상스 예술의 집결지였던 이태리 정원의 미, 고전주의 예술과 근대 철학 그리고 절대 왕정의 합작품인 프랑스 정원의 미, 철저한 계산 하에 그림 같은 자연을 모방한 영국 풍경화식 정원의 미—이 대표적 조경 양식들을 관통하고 있는 미적 지향점은 ‘형식’의 ‘아름다움’에 다름 아닌 것이다²⁾. 그리고 이 아름다움은 조화, 균형, 통일, 대칭, 비례 등과 같은 형식 미적 원리 또는 형태 구성 원리에 의해 달성된다는 것이 조경미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교과목이나 교과서들의 가르침이다.

1) 최근 미학에 새롭게 조명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성 중심의 모더니티를 극복하고자 하는 동시대 문화가 감각과 감성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미학’으로 번역되어 ‘아름다움에 관한 이론적 학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어 온 aesthetics는 본래 “감성적(감각적) 인식에 관한 학문(a science of sensual cognition)”으로 시작되었던 것임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전통적 조경미학으로는 복합적 도시 공간, 포스트-인더스트리얼 사이트, 랜드필, 브라운필드와 같은 난제의 설계적 해법에 골몰하고 있는 동시대 조경과 대화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우주에서도 육안으로 관찰될 정도의 거대한 스케일인 프레쉬킬스 매립지나 철강공업단지의 녹슨 철구조물이 야생화와 동거하고 있는 뒤스부르크노드파크의 미적 차원은 결코 대칭인가 아닌가, 비례에 부합되는가 아닌가, 그 구성이 조화로운가 아닌가에 의해 경험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대 조경은 미학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조경미학은 역사 연구의 대상일 뿐인 위기의 학문인가? 하지만, 예컨대, 한강의 밤새와 콘크리트의 생활과 차가운 금속과 식물의 생명이 뒤엉킨 선유도 공원에서 우리는 아름다움과는 분명히 다른 어떤 감각적 경험을 하며 감성적 환희를 체험한다. 무언가 다른 경로의 미적 경험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조경과 미학은 여전히 어떤 영토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그 단서를 찾는 경로상의 한 정거장이다.

3

미적 경험에는 '조화로운 형식' 곧 '아름다움'에 대한 관조와는 전혀 다르고 로고스적 사고에 의해서는 결코 완전히 설명될 수 없는 또 하나의 경향이 존재한다. 어떤 예술—특히 극예술이나 문학—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그리고 어떤 자연 앞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형식의 순수한 관조라기보다는 그것과 더불어 울고 웃고 절망하고 기뻐하는 매우 강렬한 직접적 체험이다. 그것은 공간적 지각과 로고스적 관조가 아니라 시간적 흐름과 파토스(pathos)의 분출로서 나타난다. 인간의 마음을 뒤흔들어 일상적 논리를 넘어서는 자유를 체험케 하는 역동적 힘. 여기에서 인간은 공포와 전율, 기쁨과 환희를 동시에 체험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카타르시스라는 개념으로 지칭되고 있는 비극의 효과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코스모스적이기 보다는 카오스적이며, 아폴론적이기 보다는 디오니소스적이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미학적 사고는 고대 이래로 '숭고'(the sublime : das Erhabene)라는 개념을 통해 이어져왔다(참조, 안성찬, 2004). 이 숭고의 개념은 미학사에서 항상 아름다움에 비해 부차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형식적 미 개념의 도그마에 때로는 균열을 일으키며 그것을 견제해 온 유일한 미학적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숭고의 미학적 이념은 종교적·철학적으로는 '탈아'(Ekstasis), 생산미학적 측면에서는 '열광설'(Enthusiasmus) 그리고 영향미학적 측면에서는 '카타르시스'(Katharsis)의 개념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유일하게 현존하는 숭고에 관한 고대의 문헌인 롱기누스(Cassius Longinus)의 <숭고론>은 "강력한, 영감에 사로잡힌 열정"을 숭고의 원천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숭고를 "정신적 크기와 위대함"과 관련짓고 있다(참조, Longinus, 2002). 즉 숭고는 형식이 아닌 내용과 연관되며, 감동을 주면서 체험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동안 잊혀졌던 숭고의 개념은 17세기 프랑스의 브왈로(Nicolas Boileau)에 의해 다시 되살려지는데, 데카르트적 이성을 사유의 모범으로 삼았던 근대 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숭고는 그로테스크한 것, 익살, 풍자 등 아름다움의 개념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빈번히 등장했다(참조, 안성찬, 2004). 이러한 근대의 숭고 개념은 영국의 경험주의와 만나면서 보다 명료해지는데, 버크(Edmund Burke)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버크는 아름다움과 숭고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아름다움을 "질서와 조화"의 속성을 갖춘 "명료"한 대상에서 경험되는 것으로, 숭고를 "무질서하고 형식이 없으며 불명료한" 대상에 의해 촉발되는 강렬한 감정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숭고를 느끼게 하는 대상을 "거대한 것과 무한한 것, 그리고 엄청난 힘을 지닌 것"으로 구분한다(참조, Burke, 1958; 기정희, 2002). 18~19세기에 절정에 달했던 영국 풍경화식 정원 및 자연경관에 대한 논쟁과 풍경화 이론에서 숭고 개념이 픽취

2) 물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8세기 영국 풍경화식 정원의 미적 범주가 픽취레스크(the picturesque)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18세기의 미학 이론가 움데일 프라이스(Uvedale Price)의 규정처럼, "부드러움과 고상함"으로 요약되는 아름다움(the beautiful)과 "광대함과 모호함"으로 대표되는 숭고(the sublime)가 대조적인데 반해, 픽취레스크는 양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독자적인 미적 범주로서 "거칠음, 불규칙함, 감각스러운 변형"과 같은 특질을 갖는다. 그러나 픽취레스크와 아름다움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도 있다. 픽취레스크는 아름다움을 '의도적으로' 거칠고 불규칙하게 한 경우로서, 아름다움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 이론가로는 윌리엄 길핀(William Gilpin)을 들 수 있다(참조, Ashfield & de Bolla, 1996).

레스크(the picturesque) 개념과 함께 활발히 논의되었던 이유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숭고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발전적으로 종합하는 일은 칸트(Immanuel Kant)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버크의 입장을 받아들여 아름다움과 숭고를 별개의 범주로 취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숭고에서 능동적 실천이성, 즉 의지적 측면을 발견한다. 그리고 숭고를 절대적 크기 및 물형식성과 관련되는 “수학적 숭고”와 자연의 위력 및 인간을 압도하는 힘과 관련되는 “역학적 숭고”로 구분한다(참조, 김광명, 1992). 버크와 칸트로 대표되는 근대의 숭고 논의에서 우리는 숭고의 대상이 정신뿐만 아니라 물질로 옮겨지면서 숭고의 논의가 예술 일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개념적 틀이 마련되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칸트에게서 절정에 이르렀던 숭고의 이념은 그 후 긴 시간동안 망각의 늪에 묻힌다. 물론 19세기말부터 꾸준히 벤야민, 아도르노, 하이데거 등 다수의 철학자들이 숭고를 논의한 바 있지만, 숭고를 미학사의 재고창고에서 끄집어내어 현대 미학의 중심으로 불러들인 것은 리오타르(Jean Francois Lyotard)였다. 리오타르가 포스트모더니즘의 미학적 원리로서 숭고의 미학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모더니티의 이성 중심적 체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이 근대미학의 인식론적 실재론과 이에 입각한 재현의 이념으로는 더 이상 설명될 수 없다는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다(참조, Lyotard, 1994). 생성, 해체, 무질서, 불일치 등과 같은 디오니소스적 원리에 접속하고 있는 현 시대 예술의 상황을 두고 보자면, 리오타르가 숭고를 느닷없이 들고 나온 것은 오히려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³⁾. 리오타르는 칸트의 숭고를 받아들이면서도 대상과 주체라는 이원론 속의 ‘숭고한 주체’를 거부하고 “대상의 물형식성과 현시 불가능성” 자체에서 숭고를 발견하여, 형식의 재현을 포기하고 있는 현대 예술을 설명하고 있다(참조, 진중권, 2003; 안성찬, 2004). 리오타르가 숭고를 포스트모더니즘의 미학적 원리로 제시한 이래로 숭고의 미학은 활발한 지적 논의의 중심으로 편입되고

있다. 오늘날의 숭고론은 인간 정신의 감성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모더니티의 이성을 보완하고자 한 지난 세기말 이래의 일련의 사상적·문화적 운동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 역시 현대 조경의 미를 조망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숭고에서 구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4

최근 ‘숭고’라는 단어는 학술회의, 전시회, 음악회, 연극, 종교집회는 물론 록콘서트, 대중소설, 축제, 파티, 광고 등에서도 빈번히 등장하는 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숭고라는 미학적 개념과 현대 조경을 연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 유행에 편승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글은 최근의 조경설계가 동시대 문화에 선보이고 있는 반성과 극복의 기획들이 숭고의 미학적 이념과 많은 교점을 지니며 결부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후속 논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다⁴⁾.

최근의 문화적 상황과 조건은 조경에 더 이상 아름다운 경치를 가꾸고 치장하는 화장술의 역할을 요청하지 않는다. 동시대 조경설계는 녹색 자연의 신화를 극복하고 경관의 표피적 장식을 거부하는 탈주를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기획을 굳이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틀로 규정할 이유는 없지만, 조경에 던져진 좌표가, 그리고 조경이 지향하는 방향이 종래의 ‘아름다움’이라는 미적 가치와는 다른 차원에 있음은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자연의 역동적 힘과 프로세스를 노출시키는 대지미술, 환경의 열린 시스템과 복잡한 구조에 주목하는 생태조경을, 도시공간의 거대한 스케일과 복합적 상황을 가로지르는 하이브리드 프로젝트를 관통하고 있는 미학적 지평은 무엇인가? 형태보다는 과정에, 형식적 조화의 탁월함보다는 내용적 관계의 건강함에 주목하고 있는 현대 조경의 미학적 층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장치를 우리는 이 글에서 간략히 조감해 본 ‘숭고’

3) 리오타르가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하는 합리주의적 예술관에 ‘숭고’를 대립시키고 있는 것은, 미셸 푸코가 ‘이성’ 대신 ‘광기’를 내세우고 자크 데리다가 이성중심적 ‘체계’에 ‘해체’라는 무기를 들이던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4) 동시대 조경의 지평에서 숭고의 개념을 발견하고 있는 논의의 선례로는 프레쉬퀼스 매립지 공원화 설계경기와 숭고를 연관짓고 있는 린다 폴락의 비평(Pollak, 2002)을 들 수 있다. 그밖에 매트 스타인글래스는 뒤스부르크노드프르크의 미적 차원을 “공업적 숭고”라고 해석하고 있으며(Steinglass, 2000), 개빈 키니는 자신의 웹진을 통해 다양한 차원의 숭고론을 현대 조경과 결부시키고 있다(www.geocities.com/atelierrmp). 램 콜하스의 건축론이나 프랭크 게리의 건축을 두고 숭고의 절대적 크기 및 물형식성을 논의(전필준·최재희, 2004)하는 등, 건축 분야에서도 숭고의 미학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라간 메트로폴리스의 마천루와 풍성한 갈대숲이 병치된 모습에서 이제 부조화라는 느낌을 갖지 않는다. 천덕꾸러기였던 습지가 소중한 자원으로 변모한 시대를 살고 있다. 쓰레기 매립지조차도 도시를 구성하는 의미 있는 경관이라는 생각을 한다. 고속도로나 고가구조물과 같은 콘크리트 덩어리에서도, 공장이 옮겨간 자리에 남겨진 녹슨 철제 시설물에서도 전과는 다른 특별한 감각적 경험의 장치가 요청되고 있다. 조경미학의 중심이 아름다움으로부터 승고로 이행되고 있다는 전망이 가능한 것이다.

승고의 미학은 20세기 조경이 낳은 문화와 자연, 예술과 생태학의 이원 구도가 이제 와해되고 새로운 화해의 지점이 설정되고 있는 현상의 징후이다. 미적 경험의 측면에서 현대 조경설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관조'를 대치하는 '참여'(engagement)라면(배정한, 1998), 미의 생산과 영향의 측면에서 '아름다움'을 대치하는 것은 '승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대 조경에서 승고는 이론 속의 미학적 개념을 넘어서 실천 속의 미학적 전략으로 재발견되고 있다는 해석-이 글의 조심스러운 진단이다.

인용문헌

1. Ashfield, A., and P. de Bolla, eds.(1996) *The Sublime: A Reader in British Eighteenth-Century Aesthetic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 Burke, E.(1958) *A Philosophical Enquiry into the Origin of Our Ideas of the Sublime and Beautiful*. edited by J. T. Boulton, London.
3. Longinus, C.(2002) 롱기누스의 숭고미 이론. 김명복 역.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4. Lyotard, J. -F.(1994) "The Sublime and the Avant-garde." in 지식인의 종언. 이현복 역. 서울: 문예출판사.
5. Pollak, L.(2002) "Sublime Matters: Fresh Kills." *Praxis 4: Landscapes*. pp.58-61.
6. Steinglass, M.(2000) "The Machine in the Garden." *Metropolis 20*(2): 126-31, 166-67.
7. 기정희(2002) "버크의 <철학적 탐구>에 나타난 승고의 관념." *미학 32*집: 143-67.
8. 김광명(1992) "칸트미학에 있어 '승고'의 문제." *미학 17*집: 27-44.
9. 배정한(1998) *조경에 대한 환경미학적 접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 배정한(2004)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서울: 도서출판 조경.
11. 안성찬(2004) *승고의 미학: 파괴와 혁신의 문화적 동력*. 서울: 유로서적.
12. 전필준·최재희(2004) "'승고' 미학의 건축적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4*(1): 155-58.
13. 진중권(2003) *현대미학 강의: 승고와 시뮬라크르의 이중주*. 서울: 아트박스.